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통합교육과정

The Integrated Curriculum at Division of Architecture, Mokwon University



이 승 재 Lee, Seung-Jae
정회원, 목원대 건축학부 교수
Professor, Mokwon University
sjlee@mokwon.ac.kr

머리말

2000년을 들어서며 국내 건축교육계의 화두는 국제화에 따른 건축학교육인증과 공학교육인증이라는 교육인증 시스템의 도입이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건축학교육인증은 5년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기존 건축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를 요구하였다. 이후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은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로 분리되거나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본격적으로 인증이 도입된지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각 전공 간에 가깝고도 먼 지형을 그려왔다.

최근 건축교육계에서는 ‘융합’이나 ‘통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의 등장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사회나 산업구조의 변화 패러다임에 의한, 즉 외부요인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그동안 건축교육계가 경험하고 있는 내부적 문제들에 대한 자성적인 고민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목원대학교 건축학부는 그동안의 경험과 고민을 통해 선제적으로 ‘통합교육’이라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고 이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편한지 5년에 이른다. 본 글을 통해 통합교육을 위한 준비과정과 교육과정, 장점과 단점, 개선방향 등을 소개함으로써 건축 통합교육을 위한 공론의 장을 넓히고자 한다.

연혁 및 교육과정의 변경

목원대학교 건축학부는 1979년 건축미술학과 설립

으로 출발하여, 1985년 건축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7년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학부로 선정되어 중부권 건축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건축학교육인증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2002년 건축학과(5년제)를 신설하였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건축학전공(5년제)과 건축공학전공으로 구성된 건축학부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의 모집정원 및 교육과정 변경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입생을 통합모집하고 1학년 공통과목 이수 후 2학년 진급 시 각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후 각 전공의 교육인증 준비로 인하여 2008년부터 신입생 모집 및 교육과정이 분리되었다. 이후 2010년을 넘어오면서 전공 분리에 따른 건축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외부 의견과 내부 교수진의 우려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약 2년 동안 통합교육을 위한 방향 모색 및 커리큘럼 조정을 위한 기간을 가졌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통합교육 개편작업이 시작되었고, 2014년부터 다시 신입생을 통합모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통합교육은 전공분리가 3학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전 통합교육과정(2005~2007)과 차이를 갖는다.

통합교육과정 도입의 배경

전공분리는 심화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으로 건축을 접하는 학부 학생들에게 학문의 심화라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또한 오늘날의 졸업생들은 ‘도면을 읽지 못하는 엔지니어’, ‘힘의 흐름이나 시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설계자’로 언급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의 전공분리 교육이 만들어낸 어두운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통합교육의 배경과 목적으로 거시적인 담론들이 현재 건축계 내부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논의는 생략하고 보다 현실적인 통합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에 대한 문제이다.

오늘날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학력수준의 저하로 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 자원 확보와 재학생 이탈자의 방지를 위한 노력은 대학이나 학과의 존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의 분리된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노력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많은 수험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건축에 관심을 오랫동안 가져온 수험생이라 할지라도 ‘건축학’과 ‘건축공학’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저 설계하려면 건축학, 아니면 건축공학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변 실무자에게 물어봐도 오늘날의 건축교육 시스템에서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다. 취업률이 입학자원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전공의 유사성과 모호성’ 그리고 ‘과편화에 따른 졸업 후 진로의 협소함’은 입학자의 전공 선택에 또 다른 장벽을 만들었다.

전공 선택의 불확실성은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림만 잘 그리면 멋진 건축물이 완성될 줄 알았지만 학생들은 설계교육을 통하여 고도의 논리와 사고의 다양성을 요구받는다. 아니면 건축을 구축하는 즐거움을 느껴보기도 전에 수학이나 물리 공식에 질겁하게 된다.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거나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어지면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거나 결국은 전공이수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건축을 공부하면서 상대 전공에 더욱 관심을 갖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4년제 건축공학에서 5년제 건축학 전공으로 전과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과목 이수를 위해서

차라리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어쨌든 교육과정의 분리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제거해 버렸다.

교육과정 개편

이전 통합교육(2005~2007)의 경험을 통해서 1학년 공통과정만으로는 전공과 관련한 기본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없고, 전공 선택을 위한 시간도 짧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2학년까지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3학년 진급 전에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통합 교육과정은 표 1과 같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세부 분야의 과목을 2학년까지 적어도 1과목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건축학교육인증을 위해 2학년까지 모든 전공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여, 건축학(5년제) 전공으로 진급할 때 인증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미 이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통합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설계과목으로, 기존 설계과목의 학점과 시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학년에서 다양한 전공 교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고, 공학 전공 희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설계 과목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2학년 설계과목을 6학점 12시수에서 3학점 6시수로 변경하였다. 이로 발생하는 건축학(5년제) 전공자들의 전체 설계과목 이수학점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하여, 4~5학년 3학기동안 2학점 3시수(총 6학점)의 ‘건축디자인실습’이라는 설계과목을 추가 편성하였다.

‘건축디자인실습’은 새롭게 시도하는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건축사자격 실기시험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한다. 대학에서 건축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자격시험을 위해 또 다시 건축학원을 다녀야 하는 현실적인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과목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그동안의 설계 교육과정을 정리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에 따라 설계 교육과정을 크게 기초(Basic), 핵심(Core), 졸업(Graduate) 설계의 3단계로 재

표 1.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통합 교과과정

전공구분 및 학위		신입생 공통모집 및 공통커리큘럼 운영 (2학년 2학기 전공트랙 선택)				건축학(5)년제 전공트랙 (음영부분은 건축학교육인증 프로그램)						건축학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공학사	
구분		1	2	1	2	1	2	1	2	1	2	이수 학점	
교양	대학필수	채플, 토론과글쓰기, 영어										11	
	교양핵심											9	
	교양선택											4	
	공학기초	건축의이해 기초수학	건축물리학	건축수학		수치해석입문	확률및통계						12
건축학(5) 년제 전공트랙	문화적 맥락 (역사, 행태, 환경)			서양건축사	건축계획및행태론 건축기술의역사	주거 및 단지계획론	근대건축론 한국건축사			환경친화건축론			21
	디자인 & 커뮤니케이션	커뮤니 케이션	컴퓨터 응용설계										3
	디자인	건축설계B1	건축설계B2	건축설계B3	건축설계B4	건축설계C1	건축설계C2	건축설계C3 건축디자인실습1	건축설계C4 건축디자인실습2	건축설계G1 건축디자인실습3	건축설계G2 - 졸업작품(P)		54
	기술	구조		구조역학1	구조역학2								6
		환경			건축환경				건축설비				6
		재료시공			건축재료학				건축시공				6
	실무					- 건축법규(3)				- 건축실무(3)		6	
	전공필수학점	3	6	12	15	12	12	14	11	11	6	102	
	전공선택					현대건축론 디지털건축	건축구조 시스템	동양건축사 도시계획	조경학	건축물보존과 리모델링	BIM설계		21
	자유선택									국내계절제인턴십		6	
건축학(5년제) 졸업 최소 이수학점												165	
건축학(4) 년제 전공트랙	전공필수	상동 (1,2학년 전공필수 36학점)										36	
	전공 선택	구조				철근콘크리트1 Bld. Structure	철근콘크리트2 구조해석및실습	철골구조1 구조계획및설계	철골구조 2 토질및기초공학				39
		시공/ 재료				건설경제학 건축재료실험	공법및구법 원가관리및자산	건설관리론 건축성능학	Bld.Mnage 건축관련법				
		기타						Capstone Design1	Capstone Design2 현장실습 졸업작품				
	자유선택											21	
건축공학 졸업 최소 이수학점												132	

표 2. 설계 교육과정

대구분	키워드	과목명	학점	시수	목표	주요 과제	주요 학습내용
기초 스튜디오 (Basic)	설계입문 읽기와 표현	건축설계 B1	3	6	자극과 형태 탐구 그리기와 만들기	분할, 패턴, etc.	따라하고 이해하기 기하학의 이해
		건축설계 B2	3	6	건축공간의 요소 공간의 시퀀스	건축적 산책로	건축구성요소의 이해 단위 공간 설계
		건축설계 B3	3	6	제도와 투시도 소규모 공간	소규모 주거	그린대제도, 투시도, 표현기법) 만든다(사례를 만들고 이해한다)
		건축설계 B4	3	6	설계 프로세스 분석과 계획	단독주택	대지분석 공간 프로그램, 계획 및 설계
심화 스튜디오 (Core)	단위건물 unit	건축설계 C1	6	12	기능과 구조 tectonic	사무소	교통 및 동선, 구조, 법규 안전 및 유니버설 디자인
		건축설계 C2	6	12	공간과 사회 community	공동주택	단지계획 (유닛, 주동과 외부공간) 블록에서의 집합
	도시 interaction	건축설계 C3	6	12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도시+건축	도시 및 건축의 맥락 이해 도시설계 및 리모델링
		건축설계 C4	6	12	부분과 전체 part & whole	복합용도 건축	지구단위계획의 이해와 설계 팀작업
졸업설계 스튜디오 (Graduate)	이론과 실재 theory	건축설계 G1	6	12	논리/사고 설계주제탐구	자유	건축이론, 이수 탐색 및 문헌고찰 개인별 논리화작업
		건축설계 G2	6	12	졸업논문작성	자유	작품발표 및 전시
건축 디자인실습	문제해결 능력	건축디자인실습1	2	3	배치계획 대지분석 및 주차		이론정리 및 문제풀이
		건축디자인실습2	2	3	평면설계 설비계획		이론정리 및 문제풀이
		건축디자인실습3	2	3	단면설계, 구조계획 증개축, 보수 계획		이론정리 및 문제풀이 리모델링 계획서 작성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교육 내용은 표 2와 같다.

건축공학의 3학년 이후 전공과목은 모두 선택과목으로, 구조, 시공 및 재료, 환경 등 세부 과목을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통합교육과정의 득과 실

통합모집에 의해 교육을 받은 14학번 학생들은 현재 4학년에 재학중이다. 아직 졸업자를 배출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이라 득과 실을 명확히

제시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나름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한다면, 향후 통합교육을 고민하는 학교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통합모집 및 교육과정으로 ‘전공 선택권’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완화된 느낌을 받는다. 신입생 모집 시 수험생들은 타 학교와 달리 자신들에게 2년 동안의 전공 선택권이 주어진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입학 후 학생들은 전공 선택을 위하여 학점관리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므로 3학년 이후 학생들은 학업에 임하는 자세가 보다 적극적이다.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한 2014학번 이후 재학생 이탈자 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득 이면에 문제점이 공존하기도 한다. 첫째,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심화된 교육을 제공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과목의 경우 학업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둘째, 학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외견상 건축학과 건축공학의 두 전공만이 존재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1,2학년 통합과정이라는 또 하나의 전공이 있는 것과 같다. 그만큼 학사관리나 인증준비가 복잡해진다. 셋째, 저학년과 고학년의 커뮤니티가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저학년들은 아직 전공이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전공을 기반으로 한 선후배 관계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동일한 이유로 전공교수들의 저학년 학생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개선방향

향후 개선방향으로 ‘전공심화’와 ‘관계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비교과 활동의 다양화’ 전략을 수립 및 시행중이다. 독서 및 공모전 참가와 같은 학습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지도 교수를 배정하여 부족한 전공학습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아리를 통하여 교수 및 선후배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 이외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찰과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1,2학년 공통과목에 대한 교과 수준 및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통합교육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지, 전공 교과목이 상호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며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지, 전공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물론 이는 어느 한 교수 개인의 연구가 아닌, 모든 교수와 실무자 그리고 학생들 간의 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맺음말

본 지면을 통하여 단순히 목원대학교 건축학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에 그치고 싶지 않았다. 교육과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보다 그동안 고민해왔고 실행해왔던 경험을 솔직하게 전달함으로써, 건축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일련의 여러 노력들에 동참하고 하나의 참고 사례로 전달되길 희망했다. 통합교육을 위한 준비부터 현재까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짧은 지면에 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거시적인 담론은 생략하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만을 다뤘다.

목원대학교 건축학부는 건축학, 건축공학 통합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문제점도 시행착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앞으로 통합교육을 고민하는 학교들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사례인 만큼 목원대학교 건축학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길, 건축교육에 대한 고민과 소통이 더욱 풍부해지길, 그래서 대한민국에 더욱 적합하고 건강한 건축교육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